

불교상담교육원 10월 창립

불교상담이론 체계화... '상담불교대' 내년 설립도 검토

조계종에 불교관련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발족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단체 및 사찰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상담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상담실 확보도 쉬워질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 자비의 전화, 조계사, 봉은사, 능인선원, 불광사, 수원포교당, 교사불자연합회, 포교사단, 파라미타 등 10개 사찰 및 단체는 4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10월 4일(가칭) 불교상담교육원 창립식을 갖기로 하는 등 향후 일정과 기본 사업방향을 결정 확정했다.

불교상담교육원 창립은 몇 년 전부터 종단차원의 상담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자비의 전화 등을 비롯한 각 단체 및 사찰들도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위한 공식기구 설립의 불가피성을 주장

해온데 따른 것이다. 상담교육원은 고계 상담기관 및 사찰의 연합체로 포교원 산하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며, 대표는 포교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각 단체 및 사찰 대표자들이 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사무실 및 상담실은 포교원 4층에 마련되며, 자비의 전화를 주축으로 한 실무진이 구성된다.

불교상담교육원은 우선 각 단체 및 사찰 상담기관에서 이뤄져 온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교상담이론 체계화와 함께 상담원 기초 교육과정과 불교상담 교양강좌 개설, 사찰의 상담 프로그램 및 자체 교육 지원, 일반상담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불교상담의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쯤 '상담불교대' 설립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불교상담교

육원은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연구활동 및 상담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함께 불교상담교육원은 △상담원 기초교육 △사찰 상담원 대입원진 인성검사 △사찰 학생회 성교육 △효과적인 공부법 배우기 △자녀지도법 △부부상담 △사찰 임원진 리더십 훈련 △사찰성장훈련 등의 단기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 상담원 및 신도들에게 불교상담이론을 이해시키

는 한편 불교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반 상담프로그램의 '불교화'를 시도한다. 실무를 추진해 온 자비의 전화 신회권 사무국장은 "불교상담의 발전은 곧 포교효과와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라며 "불교상담교육원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불교계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17기 행자교육원 개원

예비승려인 사미·사미니를 배출하는 조계종 제17기 행자교육원이 8월 27일 개원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직지사 만덕전에서 행자교육원 개원교복식을 봉행하고 23일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교복식에는 교육원장 일연스님과 행자교육원장 녹원스님, 유나 무관스님, 오 계성스님 등 교육관계자 스님 50여명과 273명의 행자교육생이 참석했다. 남행자 156명, 여행자 117명은 18일까지 오후불식하러서 사미(나)들의 예식의례 조계종사 초발심자경문 1배1회 3천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사미(나)계를 수지하게 된다.

김천=이윤호 기자(yhle@buddhapia.com)

청주 '디지털 상담실' 곧 개원

주인 문화공간 역할도

청주 지역의 새로운 포교신행 공간 '디지털 열린 상담실(상담실장 홍자은법사)'이 오는 10월 초 개원된다. 청주 관사사에서 활동 중인 홍자은 법사가 주축이 돼 설립되는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현재 청주대 학생회관 옆 건물에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상담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열린 상담실은 앞으로 컴퓨터 운영시스템도 마련해 명실상부한 디지털 상담실을 구축

하게 된다. 또 대형 텔레비전과 오디오 비디오 시설, 2000여권의 양서 등을 구비해 상담실 기능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계획이다.

홍법사는 "청소년 상담은 물론 종교와 성별, 연령을 초월해 지역민들의 고민과 아픔을 돌봐주는 멀티 상담기능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청주지역 교사와 지도자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초빙해, 포교방안도 기획하고 각종 법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정통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기습인상 "지식 정보화 역행... 재검토해야"

전문신문대체위 요구

지난 7월 정보통신부가 단행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기습인상과 관련해 이번 인상조치가 전문화를 역행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에도 걸맞지 않는 행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2천여개 전문신문 및 각 대학신문들은 인상조치 발표 후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통부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 불교를 비롯한 고계 신문들도 8월 16일 정통부장관 앞으로 정책변경 부당성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정보통신부가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대상 및 감액을 변경 조치는 기존의 중앙간행물 정액감액체제에서 일반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한 발행주기별 정액감액체제로, 일간(75%~75%)을 제외한 주간(73.6%~65.0%),

월간(66.4%~55.0%)신문의 감액율이 낮아짐으로써 발송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간은 40면 기준으로 변경된 170면에서 135면으로 21%가 인상이었으나 주간신문(100g 기준)은 80면에서 115면으로 무려 44%가 인상됐다.

이를 1개사 1만부 발행을 기준으로 볼 때는 월 1백42만원, 연간 1천7백4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전문화를 저해하고, 일간과 주(월)간신문과의 차별을 둔 것은 주(월)간신문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물론 법적 적용의 형평성이나 공공성을 의문한 조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명우 기자

경영정상화 적극 동참 btn특위, 이사회 전달

조계종 btn 특위는 8월 31일 제 10차 회의를 갖고 16일에 불교 TV 이사회를 열고도 허문도 불교TV사장에 요청키로 했으며 경영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종단의 입장을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반복돼오던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정휴스님의 사퇴로 공식인 특위 위원장은 여연스님(조계종 중앙총회 사회문화 위원장)이 헌신적으로 직무대행을 맡는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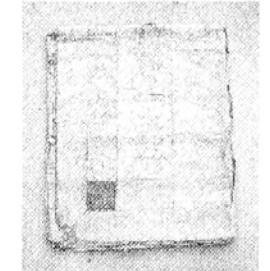
조계사서 10월10일 '가사전시회' 세계불교국 가사 '한자리에'

9개국 80여종 선보여

한국 일본 태국 미얀마 등 불교국가들의 가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달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한국 일본 미얀마 태국 대만 북한 중국 스리랑카 등 9개국의 가사 80여종을 선보이는 '가사 전시회'를 개최한다.

가사(袈裟)는 산스크리트어 Kasaya를 음역한 말로 인도에서 누더기옷을 카사야라 불렀던 것을 불교가 받아들인 것. <대승본심지관경>에는 가사를 지니고 공경하여 입을 수 있는 공덕을 "모든 죄가 소멸되고, 복덕이 생겨나며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으켜 사탄 생각을 여의게 하며, 악업은 점점 소멸하고, 10선이 점점 증장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가사에 대한 이해도모와 함께 가사불사의 공덕을 불자와 일반에 알리고 새로운 사찰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대로 다양한 가사를 선보이며 이에 따른 부대행사도 열린다.



◇통도사 소장 '석가여래가사'

소 15개 종단의 20여 종류를, 미얀마와 태국 등 남방불교 가사도 10종 이상 전시될 예정이다. 대만의 재가자가 입는 만의가사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시기간동안 각국 스님들이 자국 가사를 입고 그 나라 불교의식을 시연할 예정이어서 '가사축제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지난 8월 초 입재한 가사불사를 전시회도 했다. 또한 10월 21일 큰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각 사찰을 찾아 가사불사 봉행법회를 병행함으로써 신도들에게 가사의 의미와 가사불사의 공덕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한다.

한명우 기자

오물투척사건 특수전 법당 '새모습' 특전교육단 백마호국사 낙성

법당 오물투척 사건으로 새간의 관심을 모았던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 법당이 특전사령부 교육단 법당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육군 특전사령부 교육단 백마산호국사(주지법사 박종진)는 8월 29일 부처님 점안식 및 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육군사 주지 정락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된 이날 법회에는 특전교육단장 최재환 대령과 서울 봉은사 신도를

비롯 불자 군장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백마호국사는 건평 115평에 법당이 63평이며, 대웅방과 응접실, 법사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97년 법당(당시 가건물) 오물 투척을 비롯한 종교편향 사태를 겪은 이곳은 지난 3월 21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6월 11일자로 특전사 예하 교육단으로 편입됐다.

김재경 기자

염주사기판매 '주의' 조계종, 주요사찰에 공문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교)는 8월 31일 최근 불의를 빚고있는 고가 염주 사기판매와 관련, 교구 분사 및 직영 직할 사찰에 공문을 보내 신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라고 알렸다. 호법부는 또 피해발생시 호법부로 관련자료를 첨부해 보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개발원 산하로

가칭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8월 28일 제 1차 회의를 열고, (가)불교여성교육원 명칭을 (가)불교여성개발원으로 합의 변경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구로서 출범할 것과 토요여성교육강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다져나가기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21면>

이은자 기자

뉴스 & 뉴스

은해사 18일 산중총회

은해사 주지추천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8일 열린다.

은해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중총회 일정을 밝혔다. 은해사는 8월 29일 긴급총회의를 열어 총무국장인 법의스님을 주지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산중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은해사는 4일 교구총회를 열어 권위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교구총회에는 은해사 조실 일타스님이 참석해 법문했다.

자비의집 '추석맞이 바자회'

경북권 자비의집은 무의탁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추석맞이 바자회'를 8~9일 이틀간 강북구 미아동 자비의 집에서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삼성물산(에스에스패션)이 가을을 3천원씩, 기타 중소기업이 것갈류, 조기 등을 후원해 열리게 됐다. 자비의 집은 바자회 수익금으로 승원을 만들어 13일 법당에서 독거노인에게 나누어 주고, 11일말경 김장을 담궈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줄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26차 승려·교임 교육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8월 27일 - 29일 인곡총무원장을 비롯 종단간부 스님들과 각 중무원장 등 2백여 종단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 선암사에서 제26차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3차에 걸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태고종사 △종단의현황 △신도회 관리와 교화방법 △사찰과 종단의 재무구조 및 재정확보 방안 △현대상회에

태고종 선암사운영위 개최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위원회는 8월 27일 선암사 무무전에서 운영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태고종과 조계종과의 화합분위기에 발맞춰 선암사 문제를 대화와 화해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분구종식을 위한 종단의 중무행정적 적극 협조"라고 결의했다. 이날 종단에서 재구성하기로 한 위원회의 선암사 대표로는 정지허스님(태고선원장)이 선출됐다.

이영숙 기자

타태아가령 천도법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강 광나루 수상법당에서 '제4회 타태아가령 천도사건연합법회'를 봉행한다. 타태아가령이 가령의회의 유산사업 아가령가를 일컫는 말로, 이번 법회는 이를 아가령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사경을 중심으로 한 천도재로 진행된다. 서울 신촌사, 방성선원, 사천왕사, 한강광나루수상법당 연합으로 마련된 이번 법회는 29일 인재를 시작으로 19 일 회향된다. 한명우 기자

365일 불심으로 생활합니다. 가야불교달력

불심 가득한 원고와 질 좋은 제품이 귀 사찰의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품질만족 가격만족 서비스만족 ***

연화의향기 (大,小)

북한의명찰 (大,小)

심향 (大,小)

불리심 (大,小)

팔상도 (大)

한국의마애불 (大)

부처님의첫지 (大)

웅 (大)

한국의탑 (小)

동자요람 (小)

가까운 판매 가맹점(불교용품점)에서 주문 하시면 편리합니다.

(경기)강서만물(02)604-7766, (경기)세운만물(02)864-1961, (경기)대곡불교전서관(02)2246-3471, (경기)청진만물(02)661-3261, (경기)종원만물(02)3391-4780, (경기)상계만물(02)936-0669, (경기)경동불교(02)965-8278, (경기)송강불교(02)496-3778, (경기)송강불교(02)474-4466, (경기)부산 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경기)부산불교전서관(051)647-7393, (경기)동명불교(051)464-1941, (경기)안원(051)632-1470, (경기)관음불교(051)807-6265, (경기)불광불교사(051)525-7450, (경기)종림불교사(051)337-6386, (경기)인현,경기(연경)공동만물사(032)765-0413, (경기)태극만물사(032)883-1339, (경기)현대만물사(032)762-9381, (경기)부평만물사(032)512-8877, (경기)종로만물사(032)516-8434, (경기)강화만물사(032)933-0647, (경기)김포만물사(0341)982-0013, (경기)구리만물(0346)563-7554, (경기)동두천만물(0351)865-6284, (경기)부천만물(032)656-0365, (경기)아리랑만물사(032)666-2227, (경기)천미불교사(032)656-8562, (경기)종림고려만물(0342)751-0811, (경기)민속만물(0342)722-3369, (경기)송탄만물(0333)662-0731, (경기)팔달만물(0333)665-6627, (경기)역전만물사(0331)247-7884, (경기)인성만물(0345)495-4848, (경기)관음불교사(0334)676-4828, (경기)일심불교사(0343)447-5685, (경기)금촌만물(0348)943-1363, (경기)삼보불교사(0351)856-1020, (경기)정부불교사(0351)842-9671, (경기)성원불교(0335)336-0337, (경기)원미불교사(0333)657-2300, (경기)신장만물사(0347)793-6139, (경기)강원도 (경기)동해불교(0391)643-4058, (경기)보문불교(0397)574-3971, (경기)광명불교(0392)631-7907, (경기)성심불교사(0371)742-3745, (경기)보성만물(0395)552-5323, (경기)마허불교사(0366)434-8446, (경기)충북(경기)청주만물(0431)258-4226, (경기)백로만물(0446)883-6724, (경기)제천만물(0443)645-7517, (경기)대전,충남 도솔선불교(042)585-2278, (경기)현우불교(0415)865-0549, (경기)고려만물(0417)562-5952, (경기)충남불교(0417)557-3380, (경기)연희부만물(0454)943-5968, (경기)홍성만물(0451)633-0762, (경기)대구,경북 대일불교(053)426-7486, (경기)보광불교사(053)254-4496, (경기)보현불교사(053)252-7005, (경기)봉은승복사(053)421-5451, (경기)부용불교(053)321-4612, (경기)보광불교사(053)254-4496, (경기)대중불교문화원(0546)455-1068, (경기)불교서점(0561)749-1580, (경기)대산불교(0547)432-5863, (경기)만덕불교(0562)241-2402, (경기)경남(경기)금강불교사(0525)337-5170, (경기)일광불교사(0525)325-0780, (경기)일암불교사(0527)355-5742, (경기)부용불교사(0527)352-3756, (경기)마산불교전서관(0551)255-6678, (경기)진해불교사(0553)545-8320, (경기)고려현불교사(0558)633-2327, (경기)전북 (경기)조화불교사(0652)284-4396, (경기)원각만물(0654)446-1638, (경기)이리유기(0653)855-3883, (경기)광주,전남 김원유기(062)363-5219, (경기)만유유기(062)226-7786, (경기)호남후구사(062)366-4917, (경기)대원불교(0661)743-6755, (경기)이화불교사(0662)643-7533, (경기)제주도 불교종합전서관(064)722-4878